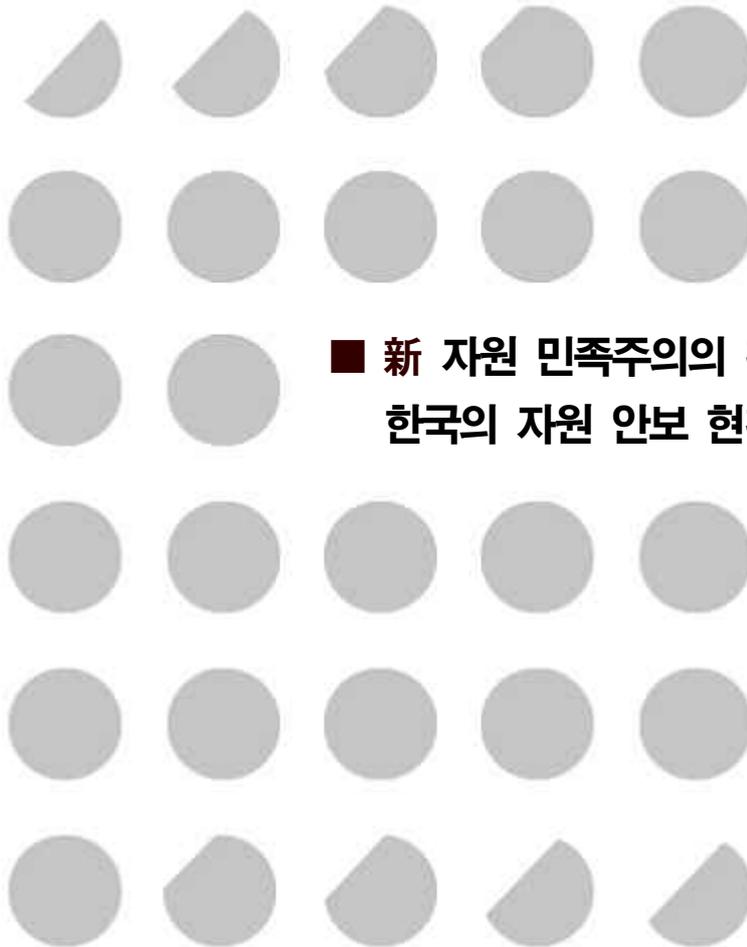




08-27 (통권 305호)

2008.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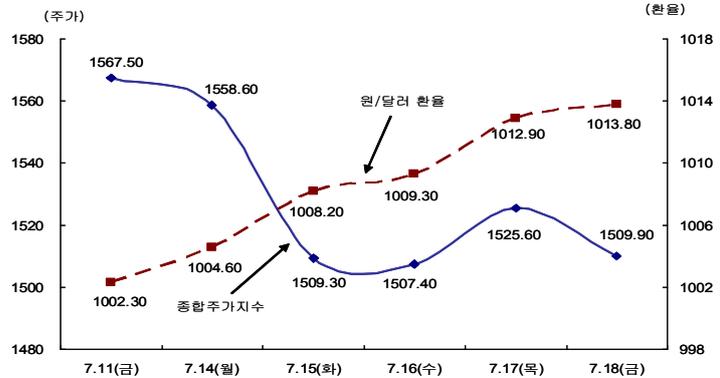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新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과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11~7.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新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과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1
주간 경제 동향	28
□ 실물 부문 : 경제 고용 창출력 약화 지속	28
□ 금융 부문 : 주가의 하락세 지속	2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산업전략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주력 산업실 : 임 상 수 연구위원 (3669-4125, happylims@hri.co.kr)

Executive Summary

□ 新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과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1. 자원 민족주의

(자원 민족주의 등장)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지닌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은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를 자원 민족주의라 한다. 중남미에서 대두된 자원 민족주의는 1960년대 UN에서 천연자원 항구주권을 의제로 확정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여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기구) 등과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신 자원 민족주의 대두) 2000년대 초반까지 퇴조를 보이던 자원 민족주의는 최근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再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전과의 구분 위해 이를 新 자원 민족주의라 칭한다. 원유를 중심으로 한 자원 민족주의는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동 지역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원자재의 경우 중국, 브라질, 호주 등을 중심으로 철강 원료를 무기화하고 있다.

(신 자원 민족주의 확산) 이러한 원유 및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新자원민족주의는 급기야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 식량 자원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곡물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게 되었으며,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 영향은 크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산물 (agriculture)의 애그와 인플레이션 (inflation)의 플레이션의 합성어를 나타낸다. 즉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폭등을 의미한다.

2. 자원 안보 위협 고조 지속 가능성

세계적 자원 전쟁 가능성 심화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新자원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재해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자원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원 확보하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70년대 이후 에너지 부족 국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여 1993년 이후 원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자원 빈국에 속하지만, 해외 자원 개발 및 경제 원조를 활용한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해 유전, 뉴멕시코, 호주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남미 등 자원 부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상재해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어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 역시 곡물 작황 및 자원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나 미얀마의 싸이클론 등과 같은 거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한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국의 자원 안보 역시 안전하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원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 **광물 자원 제외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 2003년 이후 96.7%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원유 자급률 역시 0.95%로 OECD국가 중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991년 9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에는 97.6%로 정점에 달했다가 서서히 하락하여 2007년에는 96.7%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22위 수준이다. 또한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한 후 2007년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원유 자급률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0.95%로 그리스의 0.97%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원유를 자급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노르웨이, 멕시코, 덴마크, 캐나다 등이 있으며, 원유 자급률은 노르웨이가 1,050.7%로 가장 높았으며, 멕시코 171.2%, 덴마크 161.7%, 캐나다 143%의 순을 기록했다.

둘째, 한국의 광물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2004년 84.3%로 정점에 달했다가 최근 하락하여 2007년에는 72.8%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속광의 자급률은 1983년 16.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0.21%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나 2007년 1.1%를 기록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물 전체의 자급률은 1996년까지 30%대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7년 이후 하락하여 2006년에는 최저치인 10.2%를 기록했으며 2007년 역시 10.4%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수입 광물인 철광의 경우 2001년 자급률은 0.05%였으나 이후 서서히 상승하여 2007년에는 0.61%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곡물 자급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작황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 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평균 작황을 고려하기 위해 5년 이동평균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곡물 자급도의 이동평균은 2001년과 2002년의 30.4%와 30.3%를 제외하고 29%대를 기록했지만, 2004년 이후 28%대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곡물 자급도가 하락한 것은 전반적으로 WTO협상에 따른 농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개방에 따른 수입 확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과 함께 조류독감 등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따른 먹거리 감소는 한국의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이러한 자원 안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해외 유전 및 광산을 적극 개발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보유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강화 등을 통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여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둘째, 전력 생산 에너지원 중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의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고유가 및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재생 가능 연료 및 대체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휘발유 및 경유 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연비 향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에게 시설 도입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이른바 '저에너지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 가격 급등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며,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계 각지에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해야 한다.

일곱째, 농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아닌 식량 안보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WTO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新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자원 민족주의 심화	
자원민족주의 대두	-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이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려 함
新 자원민족주의 대두	- 원유 및 원자재 시장의 초과 수요로 인해 이들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부를 조성하기 위해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려함
新 자원민족주의 확산	- 곡물 시장의 공급이 수요의 증가 속도보다 늦어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량을 무기로 한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자원 안보 위협 고조 지속 가능성									
자원 전쟁 가능성 심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자원 확보 경쟁 심화</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중국 :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자원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일본 : 해외 자원 개발 및 경제 원조를 활용한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td> </tr> <tr> <td style="padding: 5px;">피해 규모가 큰 재해 빈번</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재해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음 - 중국 쓰촨성 대지진, 미얀마의 사이클론 등 최근 재해에 따른 피해 큼 </td> </tr> </table>	자원 확보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중국 :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자원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일본 : 해외 자원 개발 및 경제 원조를 활용한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피해 규모가 큰 재해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재해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음 - 중국 쓰촨성 대지진, 미얀마의 사이클론 등 최근 재해에 따른 피해 큼 				
자원 확보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중국 :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자원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일본 : 해외 자원 개발 및 경제 원조를 활용한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피해 규모가 큰 재해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재해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음 - 중국 쓰촨성 대지진, 미얀마의 사이클론 등 최근 재해에 따른 피해 큼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자원(광물 제외) 자급률 OECD 국가 중 26위</th> </tr>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낮은 원유 자급률</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03년 이후 96.7%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30개 국 중 2007년 한국의 원유 자급률은 0.95%로 26위를 기록함 </td> </tr> <tr> <td style="padding: 5px;">낮은 광물 자급률</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광의 자급률은 2007년 1.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철광 역시 자급률은 2007년 0.6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td> </tr> <tr> <td style="padding: 5px;">낮은 곡물 자급률</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을 제외하고, 2005년 자급률 기준으로 밀 0.2%, 옥수수 0.9%, 콩 9.7% 낮은 수준을 기록함 - OECD 국가 중 2003년도 곡물 자급률은 25.3%로 26위를 기록함 </td> </tr> </table>	자원(광물 제외) 자급률 OECD 국가 중 26위		낮은 원유 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03년 이후 96.7%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30개 국 중 2007년 한국의 원유 자급률은 0.95%로 26위를 기록함 	낮은 광물 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광의 자급률은 2007년 1.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철광 역시 자급률은 2007년 0.6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낮은 곡물 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을 제외하고, 2005년 자급률 기준으로 밀 0.2%, 옥수수 0.9%, 콩 9.7% 낮은 수준을 기록함 - OECD 국가 중 2003년도 곡물 자급률은 25.3%로 26위를 기록함
자원(광물 제외) 자급률 OECD 국가 중 26위									
낮은 원유 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03년 이후 96.7%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30개 국 중 2007년 한국의 원유 자급률은 0.95%로 26위를 기록함 								
낮은 광물 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광의 자급률은 2007년 1.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철광 역시 자급률은 2007년 0.6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낮은 곡물 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을 제외하고, 2005년 자급률 기준으로 밀 0.2%, 옥수수 0.9%, 콩 9.7% 낮은 수준을 기록함 - OECD 국가 중 2003년도 곡물 자급률은 25.3%로 26위를 기록함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에너지원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보유국에 대한 ODA강화 등을 통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여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 - 원자력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 - 대체 에너지에 대한 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가능 연료 및 대체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에너지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시설 도입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 교부가가치 산업인 '省 에너지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 유도
식량 위기 대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지에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식량 안보와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지하고, WTO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농업 보조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1. 자원 민족주의 등장

○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¹⁾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주의가 대두되었으며, 특히 자원을 무기로 했다는 점에서 자원 민족주의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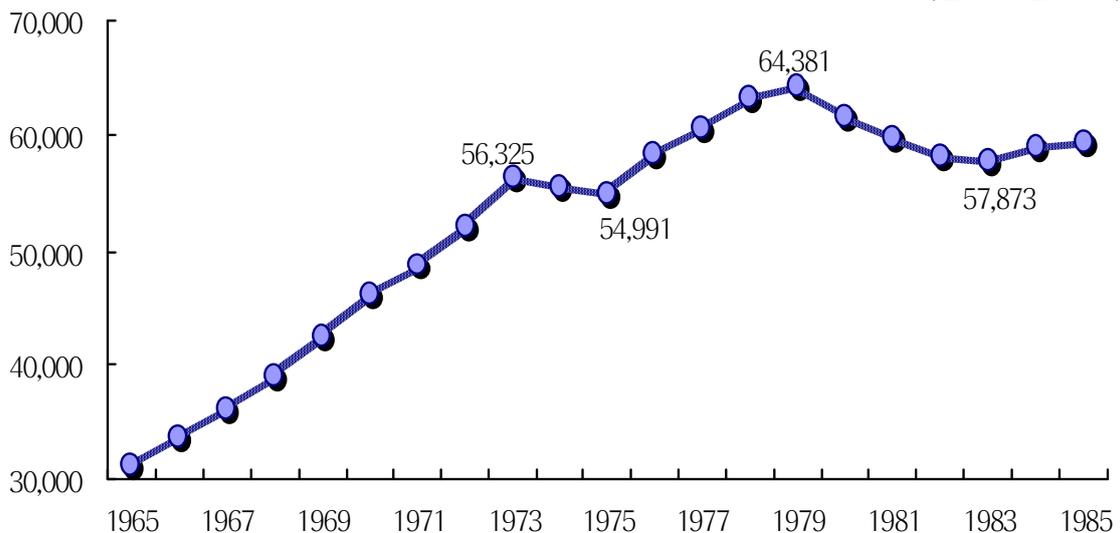
-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지닌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은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초를 자원 민족주의라 함
-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 : 중남미에서 대두된 자원 민족주의는 이후 중동 지역의 산유국으로 확산됨
 - 멕시코는 1911년 혁명 이후 헌법에 자원은 국가의 소유라고 밝힘
 - 베네수엘라는 1920년 외국으로부터 석유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탐유세 부과 및 2차 대전 이후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석유법을 제정함
 - 1951년 이란은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1960년대** : UN에서 천연자원 항구주권을 의제로 확정함에 따라 자원 민족주의는 더욱 발전하여, 자원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함
 - 천연자원 항구주권이란 천연자원은 이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항구적인 주권으로 이를 개발, 생산, 또는 가격 결정 등의 업무 역시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임을 의미함
 - 자원보유국들은 개별 국가 차원으로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석유 수출기구(OPEC :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구리수출국정부간 협의회(CIPEC : Council of Copper Exporting Countries),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 Organizacion Latinoamericana De Energia)등이 이에 속함²⁾

1) 김원웅(2005), “국제 에너지·자원 환경과 자원 외교” 참조.

- 1970년 ~ 1980년 초반 : OPEC을 중심으로 자원 민족주의로 1, 2차에 걸쳐 석유 파동이 발생함
 -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 간 전쟁에서 서방이 親 이스라엘의 성향을 나타내자, 이에 원유의 서방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축소했으며 이에 따라 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함
 - 1979년 이란바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를 몰아낸 이란은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세계는 2차 석유 파동을 맞이함
 - 이처럼 산유국들이 1, 2차 석유 파동과 같은 원유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 전쟁 실패와 세계 경제 불황으로 미국, 영국의 정치적 힘을 엿고 있던 석유 메이저들이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임³⁾
- 1980년 초반 이후 : 1,2차 석유 파동에 따른 원유가 급등으로 세계 원유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자원 민족주의는 약화되기 시작함
 - 급증하던 원유 소비량은 1차 석유 파동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4년 일평균 5,549만 배럴, 1975년 5,499만 배럴로 감소함
 - 2차 석유 파동 이후인 1980년 원유의 일평균 소비량은 6,173만 배럴, 1981년 5,980만 배럴, 1982년 5,812만 배럴, 1983년 5,787만 배럴로 감소함

< 일평균 원유 소비량 추이 >

(단위 : 천 배럴)



자료 : BP 웹 페이지.

2) 신원섭·박용진(2007), “최근 자원 민족주의의 재확산과 향후 전망” 참조.

3) 한겨레 21(2006), “석유값이 콜라값, 그 어두운 미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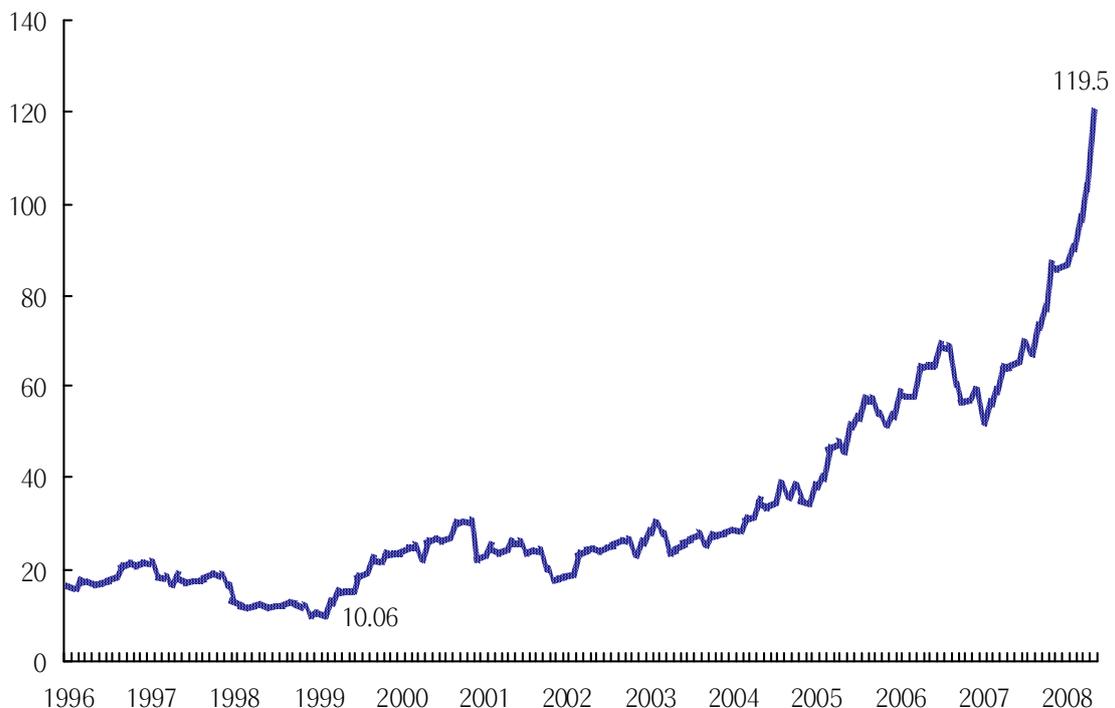
2. 新 자원 민족주의 대두

○ (新 자원 민족주의 대두) 2000년대 초반까지 퇴조를 보이던 자원 민족주의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再 대두하기 시작했으며, 이전과의 구분을 위해 이를 新 자원 민족주의라 칭함

- 원유 가격 급상승 : 2007년 4월 이후 급상승하기 시작한 Dubai 원유 가격은 2008년 4월 월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103.62 달러를 기록함
 - Dubai 원유의 연평균 가격은 1996년 배럴당 18.57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11.5%씩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68.43달러를 기록함
 - 2003년 이전 Dubai 원유 가격은 월평균 0.9%씩 완만하게 상승한데 반해 2004년 이후 Dubai 원유 가격은 월평균 3%씩 급상승함
 - 특히 배럴당 월평균 원유 가격은 2007년 1월 51.8달러였으나, 이후 월평균 5.4%씩 증가하여 2008년도 5월에는 월평균 가격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19.5 달러를 기록함

< 월별 Dubai 원유 가격 추이 >

(단위 : 달러/배럴)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원자재 가격 급상승 : 원자재 가격을 가늠케 하는 상품가격지수는 최근 급상승하고 있음
 - 상품가격지수의 연평균은 2003년 60.7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31.8%씩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83.3을 기록함
 -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상품가격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평균 -0.3%씩 완만하게 감소한데 반해 2003년 이후에는 28.5%씩 상승함
 - 상품가격지수는 2003년 1월 57이었으나, 2005년 8월 100을 넘었으며 2007년 5월 사상 최고인 205.38을 기록했으며,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으나 2008년 5월 여전히 높은 수준인 190.46을 기록하고 있음

< 월별 상품가격지수 추이 (2005=100) >



자료 : IMF.

- (新 자원 민족주의 내용)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이들에 대한 중요성 증대로 자원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자원 민족주의 노선을 걷고 있음
- 자원 민족주의와의 차이 : 과거 자원 민족주의가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新 자원 민족주의는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유 및 원자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원유 자원 민족주의** : 최근 新 자원 민족주의는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유의 국유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⁴⁾
 - **베네수엘라** : 종전 다국적 기업 소유의 유전 사업에 대해 계약을 변경하여 정부가 60% 이상을 소유하는 합작사업 방식으로 국유화하며, 세율 및 로열티를 인상함
 - **볼리비아** : 2006년 5월 1일 외국 석유회사들의 석유 소유권을 180일 이내에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에 이전하도록 함
 - **에콰도르** : 2006년 4월 석유회사들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함
 - **아르헨티나** : 2004년 10월 국영에너지회사를 설립해 석유의 탐사 및 정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함
 - **러시아** : 2003년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Yukos를 해체하고 자회사인 Yuganskneftegaz를 국영 석유회사 Rosneft에 매각하는 등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함

- **원자재 자원 민족주의⁵⁾** : 최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철강 원료를 무기화하는 新 자원 민족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철강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폭등에 대해 철강 원료의 수출을 억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이를 무기화하고 있음
 - 또한 원료 수출의 대가로 대규모 철강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참여와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수입을 강요하고 있음
 - **중국** : 2005년 5월 철광석, 선철, 고철 등의 철강 원재료에 대해 가공 무역 수출을 금지했으며, 특히 철광석과 고철 등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함
 - **브라질** : 세계 3대 철광석 공급업체인 CVRD는 철광석 공급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브라질 내 제철소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 철강사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 JFE 스틸, 중국의 바오산 등에 공급하는 철광석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65% 인상함
 - **호주** :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턴토와 BHP 빌리톤도는 철광석 가격의 최대 154% 인상을 요구함

4) 이달석(2007), “新 자원 민족주의의 현상과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내용 인용.

5) 윤현순·한기호(2006), “자원 민족주의 재 확산에 따른 파급 영향”, 포스코경영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 2008년 3월 2일자 내용 인용.

3. 新 자원 민족주의 확산

○ (곡물 자원 민족주의 대두) 곡물 시장의 초과 수요는 곡물 가격을 급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식량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는 곡물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함

- 곡물 가격 급상승 : 미국 쌀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7년 12월 이후 곡물 가격은 급상승함

- 밀 선물 가격은 2006년 9월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부셸당 300센트 대에서 400센트 대로 진입했으며, 2006년 10월 500센트 대로, 그리고 2008년 2월에는 1,000센트 대에 진입함
- 옥수수 선물 가격 역시 2006년 10월 부셸당 200센트 대에서 300센트 대로 진입했으며, 2007년 2월 400센트 대, 2008년 2월에는 500센트 대에 진입함
- 대두 선물 가격은 2006년 11월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부셸당 500센트 대에서 600센트 대로 진입했으며, 2007년 2월 700센트 대, 2007년 6월 800센트 대, 2007년 9월 900센트 대 그리고 2007년 11월에는 1,000센트 대에 진입함
- 특히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밀, 옥수수, 대두의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2008년 3월 밀의 월평균 선물 가격은 부셸당 1,102 센트, 옥수수 가격은 553 센트, 대두 가격은 1,360 센트를 기록함

- 곡물 자원 민족주의 대두 : 이와 같은 곡물 가격 급상승은 이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여 국가의 부를 축적하려는 식량 자원 민족주의로 발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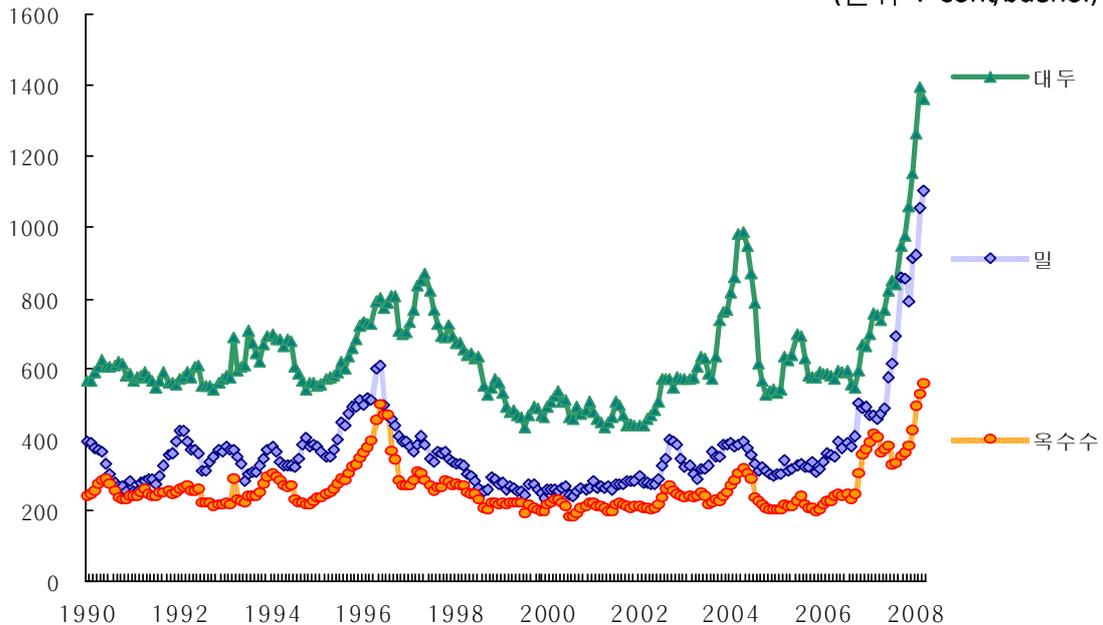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식량 수출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식량 소비 대국들 역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에 대한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중국 : 곡물 및 곡물 가루에 대해서는 수출 환급금을 폐지했고 2008년 1년 동안 5~25%의 수출 관세를 잠정 부과하고 있으며, 곡물가루에 대해서는 수출 쿼터제를 실시함⁶⁾
- 우크라이나 : 곡물 수출 허가제를 곡물 수출 쿼터제로 강화 시행하였으며,

6)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08. 1. 7.), News Letter Service.

2007년 2월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출 쿼터제는 철회했으나 밀, 호밀 등 식용 곡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음)

< 주요 곡물의 월평균 선물 가격 추이 >

(단위 : cent/bushel)



자료 : CBOT.

- 주 1. 한국은행 및 한국경제신문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수집.
- 2. 밀, 옥수수, 대두의 최근월물 선물 가격임.

○ (식량자원 시장의 초과 수요) 식량자원 즉 곡물 시장은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초과 수요가 형성됨

- 전반적으로 곡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2000/01년 발생한 초과 수요는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 점점 커지고 있음
 - 2000/01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16억 8,560만 톤이었으나, 소비량은 17억 500만 톤으로 약 1,980만 톤의 초과 수요가 발생함
 - 이후 생산량 증가 폭보다 소비량 증가 폭이 더 커 2006/07년에는 생산량이 19억 5710만 톤, 소비량이 19억 8,390만 톤으로 약 2,680만 톤의 초과 수요가 발생함
 - 이는 세계 곡물에 대한 초과 수요량이 2000/01년의 1.9억 톤보다 약 700만 톤이 증가한 수준임

7) 김창식(2002. 2. 26.), “우크라이나 사료용 곡물 수출 쿼터 철회” 인용.

- 2000/01년도부터 중국 곡물 시장에 초과 수요가 나타났으며, 인도의 경우 2002/03년도부터 초과 수요가 발생함
- 중국과 인도의 곡물 생산량이 작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것과는 달리 소비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

(단위 : 백만 톤)

	세계		중국		인도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2000/01	1,685.6	1,705.4	352.2	377.7	161.2	142.7
2001/02	1,764.7	1,803.4	347.7	394.9	162.8	152.5
2002/03	1,743.0	1,825.8	350.3	401.2	144.5	155.0
2003/04	1,755.4	1,840.9	330.2	402.3	153.4	153.6
2004/05	1,958.1	1,908.2	365.0	403.5	155.3	153.6
2005/06	1,956.8	1,959.5	379.6	410.5	160.4	155.1
2006/07 추정치	1,957.1	1,983.9	393.7	417.4	162.7	160.3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각 년도.

주 :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은 밀, 옥수수, 대두, 쌀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합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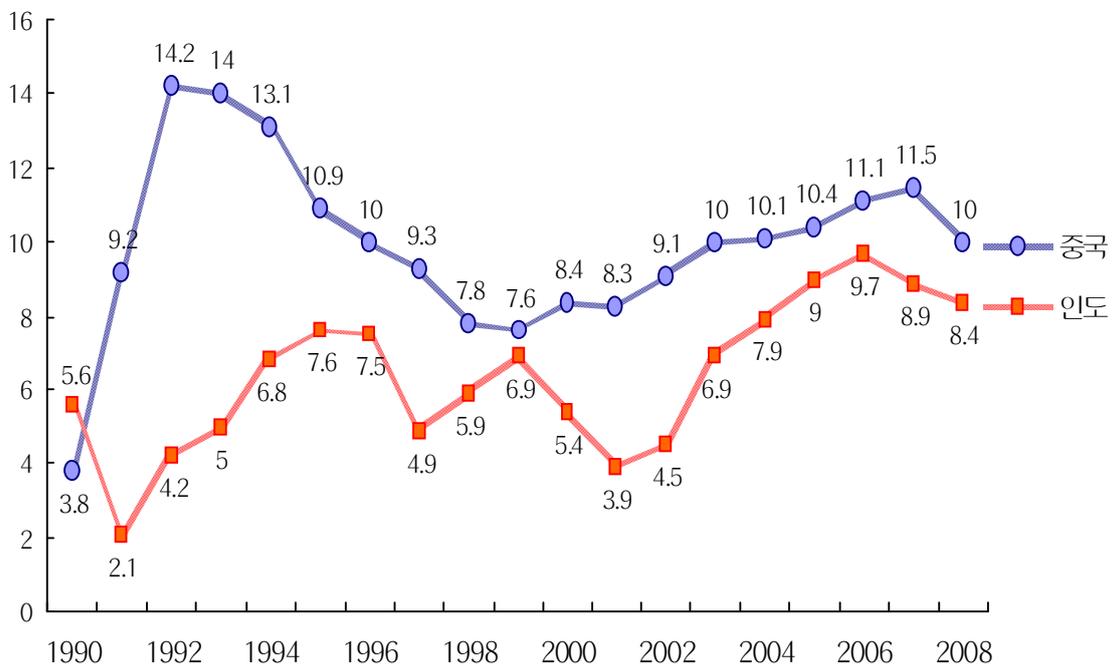
○ (곡물 수요 증대)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곡물 소비량 증가 및 바이오 연료개발에 따른 곡물 수요 증대, 식량 작물의 투기 수요 증대로 인해 곡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거대 신흥 시장의 곡물 수요 증대 :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곡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가 증가했으며, 또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 역시 증가함
 - 중국, 인도 등의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거대 인구는 곡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를 증가시킴
 -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는 거대 신흥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육류에 대한 수요가 증감
 - 이러한 육류에 대한 수요 증가는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용 곡물 수요를 증대시킴

-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2년의 14.2%를 정점으로 1999년까지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함
- 인도 역시 경제 성장률은 2002년 이후 상승하여 2006년 9.7%로 정점에 달한 후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및 인도의 경제 성장률 추이 >

(단위 : %)



자료 : IMF.

-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 :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밀, 보리 등의 곡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전 세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118억 8,700만 갤런이었으나 2007년에는 143억 6,700만 갤런 그리고 2015년에는 219만 800만 갤런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은 2011년을 정점으로 증가를 멈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라질, 중국, 인도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각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 Gall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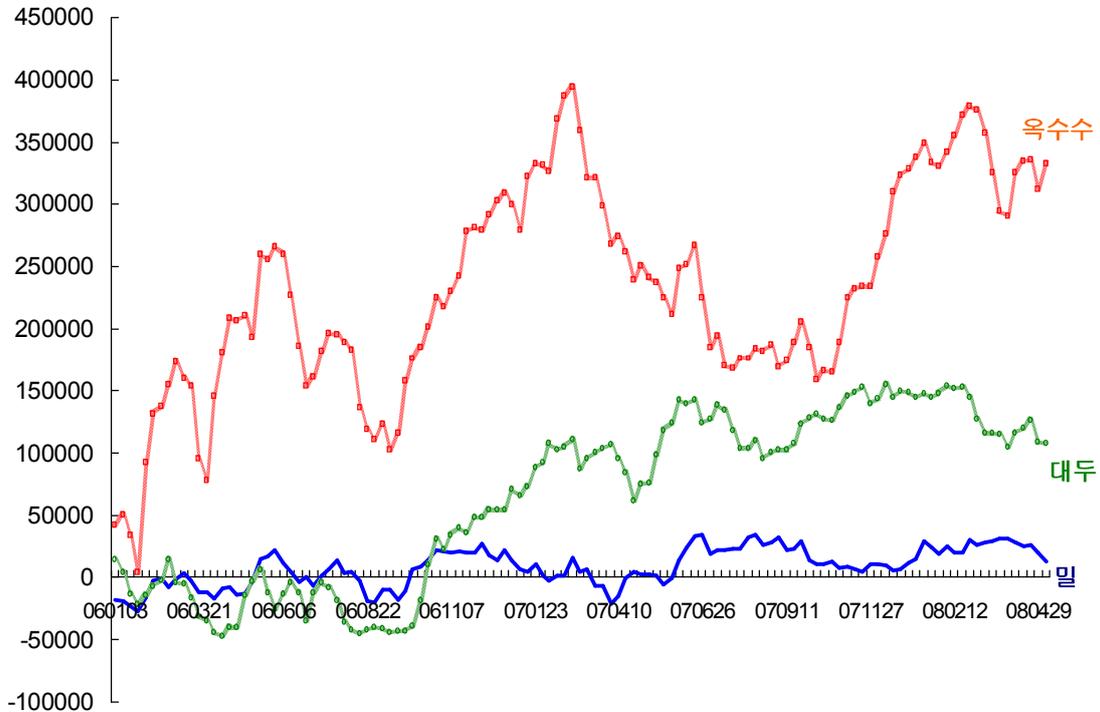
구 분	미국	브라질	중국	EU	인도	계
2006년	4,692	4,763	1,083	864	486	11,887
2007년	6,910	4,977	1,090	905	485	14,367
2008년	9,522	5,153	1,108	972	498	17,252
2009년	11,190	5,386	1,125	1,031	507	19,239
2010년	11,870	5,652	1,135	1,094	513	20,263
2011년	11,958	5,922	1,146	1,157	520	20,703
2012년	11,875	6,201	1,157	1,218	528	20,979
2013년	11,751	6,495	1,170	1,278	536	21,230
2014년	11,639	6,812	1,183	1,338	547	21,519
2015년	11,602	7,153	1,198	1,398	557	21,908
2016년	11,602	7,524	1,214	1,458	569	22,367

자료 : 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투기 수요** : 미국 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곡물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됨
 - 미국 밭 서브프라임 론 부실 사태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로 금융 시장의 자금이 농산물, 원유, 원자재 등과 같은 상품 시장으로 유입됨
 - 시카고상품거래소 밀 선물 거래 시장의 경우, 2007년 6월 5일 순매도에서 순매입(14,071건)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순매입세가 지속되고 있음
 - 시카고상품거래소 옥수수 선물 시장 역시 순매입 건수는 2006년 1월 3일 42,186건에서 2007년 1월 2일 185,942건, 2008년 2월 19일에는 372,611건으로 급증함
 - 시카고상품거래소 대두 선물 시장의 순매입은 2006년 10월 17일 11,027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순매입세가 지속되어 2008년 2월 19일에는 152,746건으로 2006년 10월 17일 대비 13.9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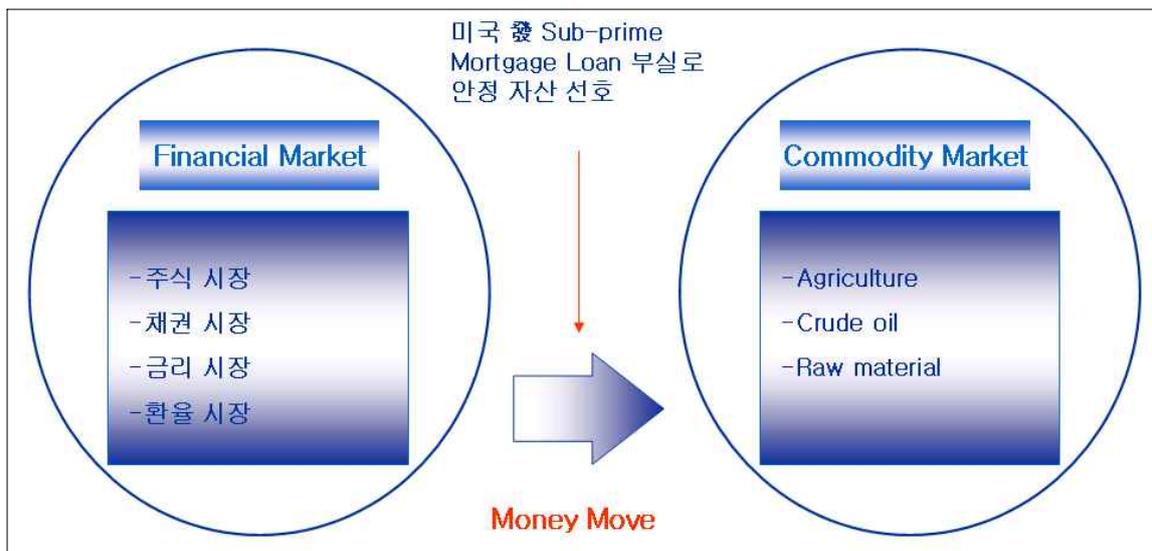
< 주요 곡물 선물 시장 자금 순유입 추이 >

(단위 : 전 계약 건수)



자료 :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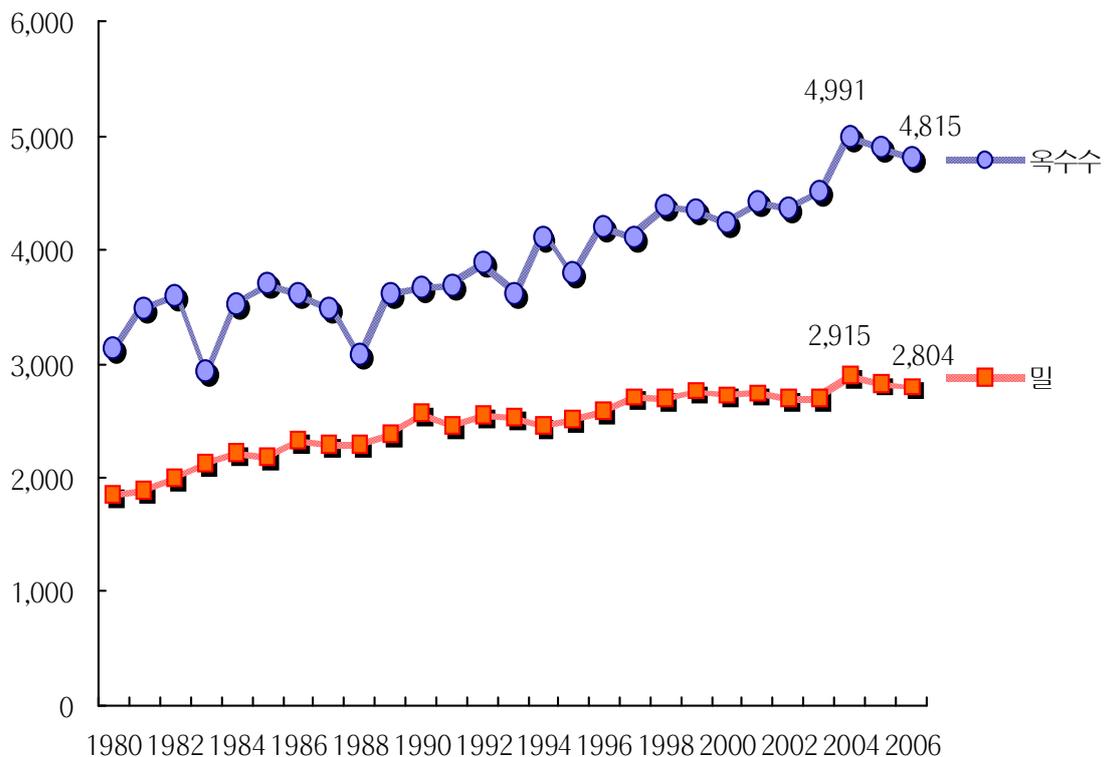
< 투기 수요 증대 메커니즘 >



○ (곡물 공급 증가 억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에 의한 작황 부진, 곡물 재배면적 감소,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증대로 곡물 공급의 증가가 억제되고 있음

-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 : 지구 온난화의 진전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최근 들어 작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단수가 감소함
 - Munique Re⁸⁾에 따르면, 2006년의 세계 자연재해 발생 수는 이전 10년 평균인 700개 보다 많은 850개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옥수수 및 밀의 재배면적 1ha 당 수확량인 단수 역시 2005년과 2006년 감소함
 - 옥수수의 단수는 2004년 ha당 4,991kg이었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4,900kg과 4,815kg으로 감소함
 - 밀의 단수 역시 2004년 ha당 2,915kg에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839kg과 2,804kg으로 감소함

< 옥수수 및 밀의 단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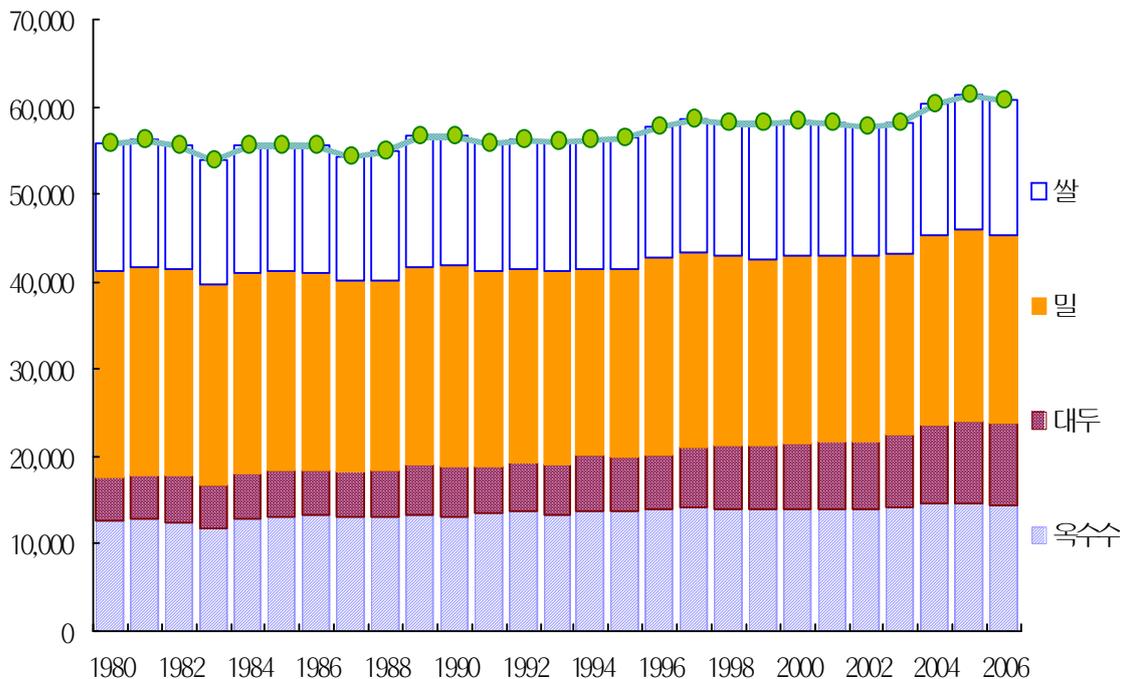
자료 : FAOSTAT..

8) Munich Re, "Topics Geo : Natural catastrophes analyses, assessments, positions," 2005, 2006.

- 곡물 재배 면적 감소 :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증가하던 세계 곡물 재배면적이 2006년 감소함에 따라 이후 생산 능력이 감소함
 - 전반적으로 쌀, 밀, 대두, 옥수수 재배면적을 합한 세계 곡물 재배면적은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증가했으나 2006년 감소함
 - 세계 쌀 재배면적은 1994년 1억 4,729만 ha에서 1999년 1억 5,690만 ha까지, 2003년 1억 4,814만 ha에서 2005년 1억 5,448만 ha로 증가했으나, 2006년 1억 5,432만 ha로 감소함
 - 밀 재배면적 역시 2001년(2억 1,383만 ha)부터 2003년(2억 782만 ha)까지 감소한 이후 2005년(2억 2,144만 ha)까지 증가세에 있었으나 2006년 2억 1,610만 ha로 감소함
 - 대두 재배면적은 1997년 6,694만 ha에서 2004년 9,058만 ha로 증가세에 있었으나 2005년과 2006년 감소함
 - 옥수수 재배면적은 1997년 1억 4,215만 ha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1억 3,836만 ha를 기록한 이후 2005년까지 증가세에 있었으나 2006년(1억 4,438만 ha) 감소함

< 주요 곡물의 재배 면적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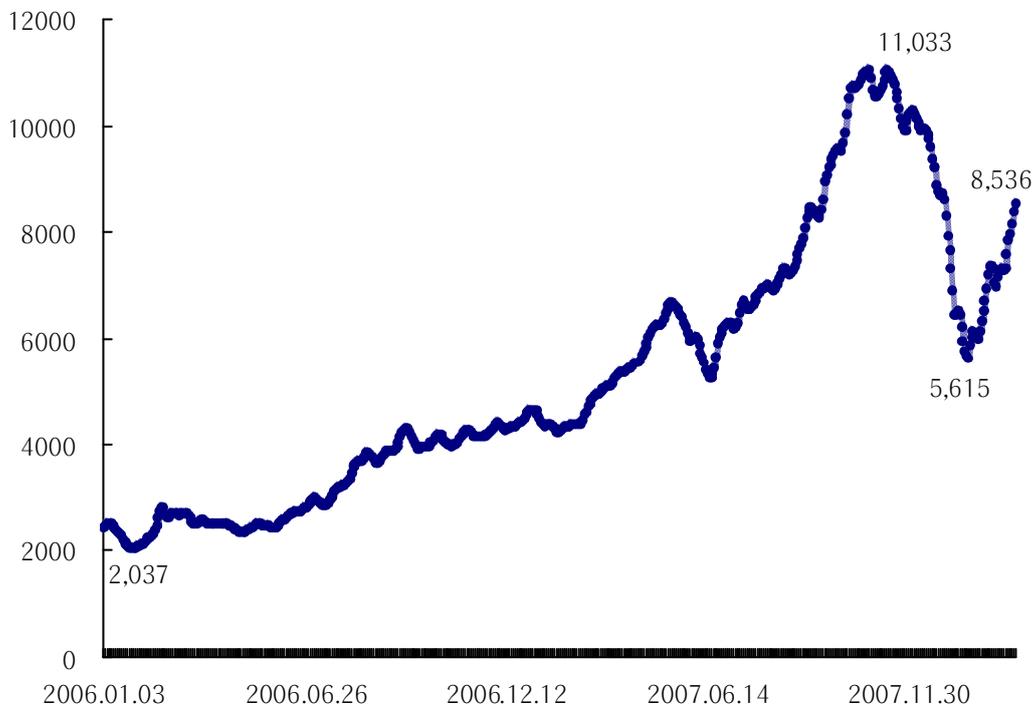
(단위 : 만 ha)



자료 : FAOSTAT.

- **생산비 증가** :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상승함
 - 원유가 급등 및 세계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해상운임이 크게 상승함
 - 요소 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 곡물 공급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상승함
 - 벌크선 운임지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벌크선 운임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0월 29일 11,033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08년 1월 29일 5,615를 기록함
 - 그러나 2008년 1월 30일 6,052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3월 7일 현재 8,536을 기록함
 - 이는 2006년 1월 3일 벌크선 운임지수 2,438에 비해 약 250.1% 상승한 수준임
 - 이와 같은 벌크선 운임지수의 상승은 교역 비용을 증가시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벌크선 운임 추이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자원 안보 위협 고조 지속 가능성

-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新 자원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원 전쟁 특히 식량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자원 확보 경쟁 치열) 新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
 - 미국 : 70년대 이후 에너지 부족 국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함
 -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에너지 정책발전위원회를 창립했으며, 수소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 원자력 발전 동결에서 재개의 정책을 마련함
 - 또한 중동, 카스피해, 아프리카 등 미개발지역에 대한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중국 :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1993년 이후 원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함
 - 2005년 5월 국가 에너지 기구를 설립했으며,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자원 부국들을 방문하여 자원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
 - 또한 2006년 나이지리아 심해 유전 지분 45%와 2005년 카자흐스탄 석유회사를 인수했으며, 카스피해, 아프리카, 남미 등 16개국에서 유전 지분 및 석유 개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일본 : 한국과 함께 자원 빈국에 속하지만, 해외 자원 개발 및 경제 원조를 활용한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북해 유전, 뉴멕시코, 호주 등 세계 30여개 국에서 에너지 개발에 참여함
 - 러시아, 남미 등 자원 부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음

9) 박형일이영진(2006), “세계 에너지·자원 현황 및 최근 동향”, 산업은행 내용 인용.

- 유럽 : 해외 자원 개발로 에너지 자주개발률¹⁰⁾을 50% 이상 달성했으며,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
 - 프랑스 Total, 스페인 REPSOL, 이탈리아 ENI 등은 국가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된 에너지 기업임
 - 에너지 자주개발률의 경우 프랑스가 93%, 이탈리아가 51%, 스페인이 56%를 기록함

○ (자원 민족주의 지속에 따른 자원 전쟁 가능성 고조) 원유, 원자재, 식량 가격 폭등세 지속에 따라 자원 부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 강화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자원 전쟁 가능성 역시 고조되고 있음

- 자원 가격 폭등세 지속 : 금융 시장 불안에 따라 여전히 상품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들의 자원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어 자원 가격 폭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원유 현물 가격은 2008년 5월 8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두바이유는 배럴당 116.48달러, 브렌트유는 119.56달러,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123.71달러를 기록함
 - 알루미늄의 LME(London Metal Exchange : 런던 금속 거래소) 현물 가격은 2008년 4월 24일 톤당 3,041 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옥수수 CBOT(Chicago Board Of Trade : 시카고 선물거래소) 근월물의 경우, 2008년 4월 3일 부셸당 600센트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600선을 돌파했으며, 2008년 5월 8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630.25 센트를 기록함
 - 쌀 CBOT 근월물의 경우, 100파운드 당 가격은 2008년 4월 24일 사상 최고치인 25.07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미얀마의 사이클론 참사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자원 민족주의 지속 : 과거 자원 민족주의는 공급자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면, 新 자원 민족주의는 상품시장의 초과 수요에 의해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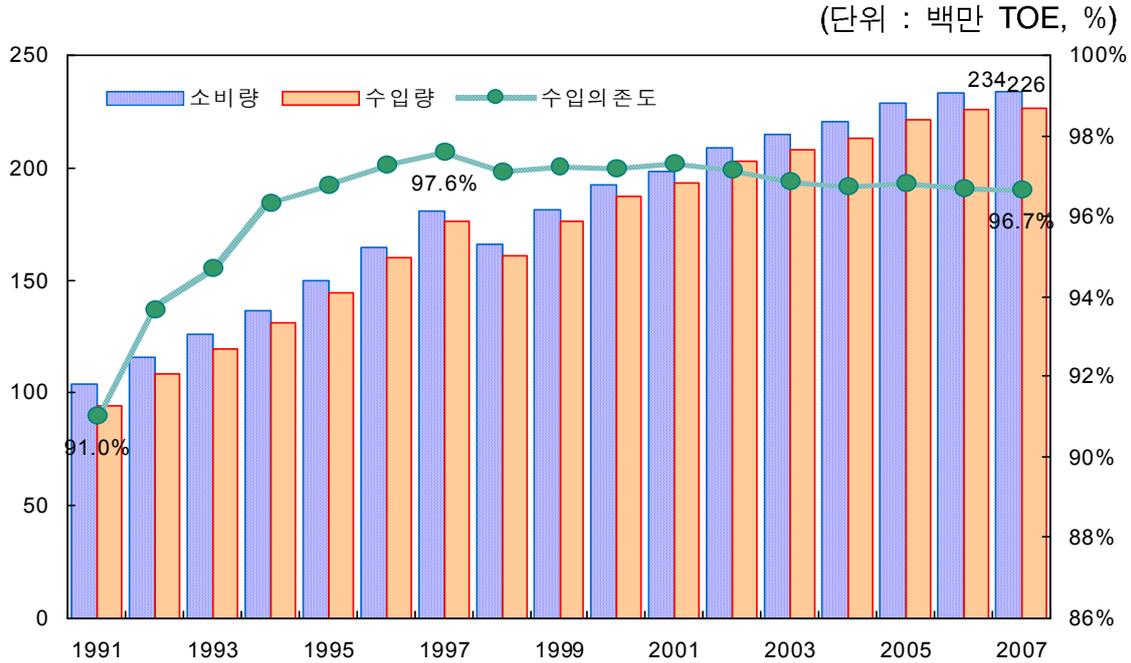
10) 자주개발률은 1년 동안 소비된 자원의 양을 국내외에서 생산된 양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자주 개발률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원유에서 출발한 자원 민족주의는 원자재, 곡물로 확산됨에 따라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現 세계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최근 新 자원 민족주의는 과거처럼 공급을 축소함에 의해 대두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 초과 수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큰 문제임
 - 이처럼 新 자원 민족주의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거나 심지어 자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세계 자원 전쟁 가능성¹¹⁾** : 자원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원 민족주의로 인해 빈민국의 자원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자원 전쟁은 발발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같은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자원 역시 정치적 무기로 이용될 경우, 자원 가격 급등은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이로 인해 경제가 붕괴된 빈민 국가들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폭동은 여타 주변 국가들로 번져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1998년 외환 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경제 파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염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원 민족주의는 빈민국들을 중심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식량은 사람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자원 중에서도 식량 자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저소득 식량 수입 국가들의 경우 기아 지대 확대에 따른 폭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폭동이 확대될 경우 국가 간 식량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따르면 식량 가격 상승은 베냉과 니제르 같은 아프리카 빈국들, 방글라데시와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식량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식량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WFP(World Food Plan)에 따르면 예산 제약에 따라 식량 자원을 줄이거나 수혜자를 축소하는 등의 식량 자원 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큼

11) PRESSiap 2007. 10.25, 경향신문 2008. 2.25, 서울경제 2008. 2.25 기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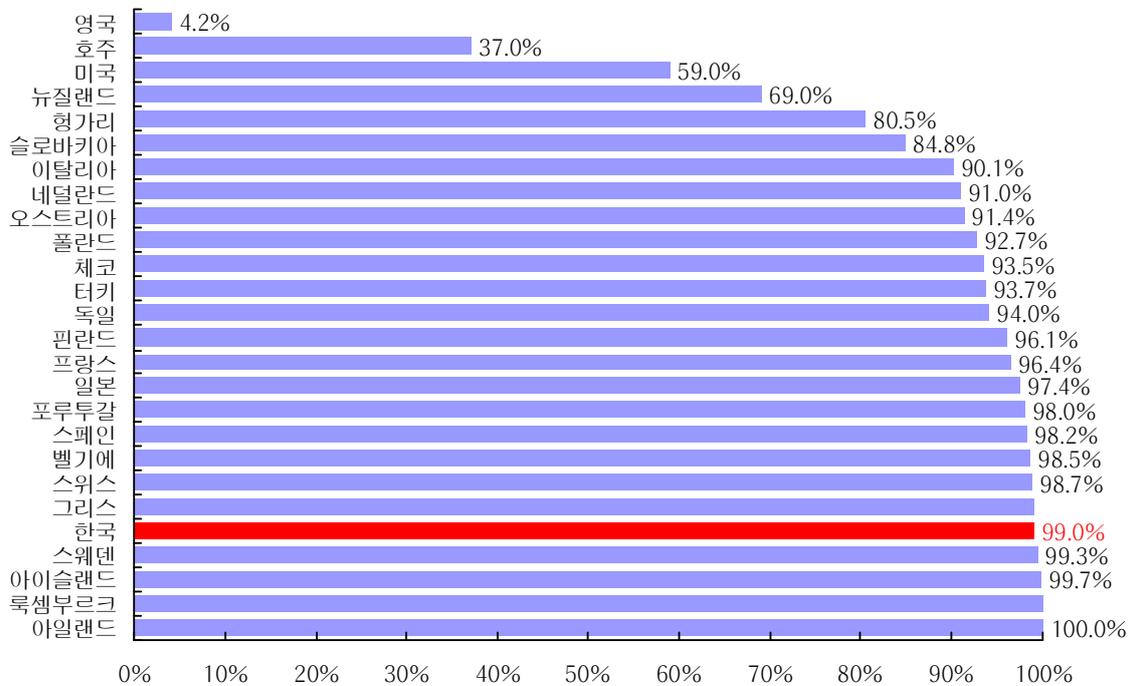
- (한국의 자원 안보 위협)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광물 자급률은 여전히 낮고 광물을 제외한 자원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26위로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 최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정점에 달했던 1997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함
 -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991년 9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97.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03년 이후 96.7% 전후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30개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00년 99.3%로 6위를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99%로 1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함
 - 또한 OECD의 원유 순수입 국가들 중 2000년 수입의존도에서 2007년 수입의존도의 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0.3%p 하락하여 일본의 0.6%p 하락에 이은 11번째로 수입의존도가 하락한 국가로 나타남
 - 슬로바키아는 원유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2000년 95.3%에서 2007년에는 84.8%로 10.4%p 하락하여 수입의존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로 기록됨
 - OECD 국가 중 2007년 기준 원유 소비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42.6%를 기록했으며, 일본이 10.2%로 2위를 기록함
 -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를 산출한 결과, 노르웨이, 멕시코, 덴마크, 캐나다의 4개국만 원유를 자급하고 있는 국가들로 나타남
 - 노르웨이의 원유에 대한 자급률은 1,050.7%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멕시코가 171.2%로 2위, 덴마크 161.7%로 3위, 캐나다 143%로 4위의 순을 기록함
 - 한국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5%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리스의 0.97%에 이은 27위 수준임
 - 반면 일본은 2.61%를 기록하여 20위를 기록했으며, 독일의 자급률은 무려 6%로 17위를 기록함
 -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2007년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원유 자급률 순위에서 제외됨

< 에너지 수입 의존도 추이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DB,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에너지 수입 의존도 = 수입량 /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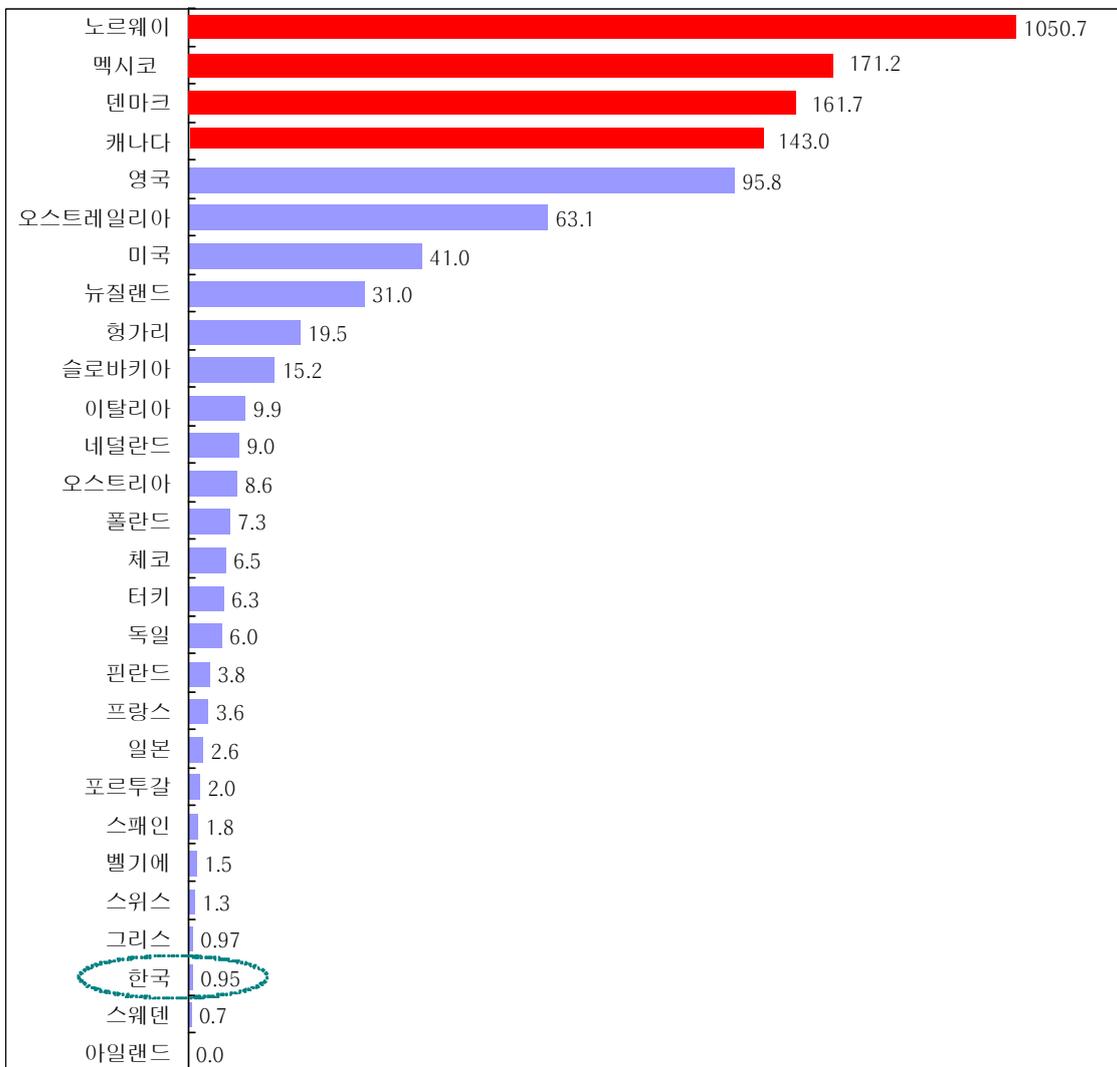
< 2007년도 OECD 국가별 원유 수입 의존도 >



자료 : EIA, "International Energy Annual, Short Term Energy Outlook",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낮은 원유 자급률 : 2007년 기준 한국의 원유 자급률은 1%로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함
 - OECD 국가 들 중 원유를 자급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노르웨이, 멕시코, 덴마크, 캐나다 등이 있으며, 2007년도 원유 자급률은 노르웨이 1,050.7, 멕시코 171.2, 덴마크 161.7, 캐나다 143을 기록함
 -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데이터 부재로 자급률 산출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의 자급률은 0.95%로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함

< 2007년도 국가별 원유 자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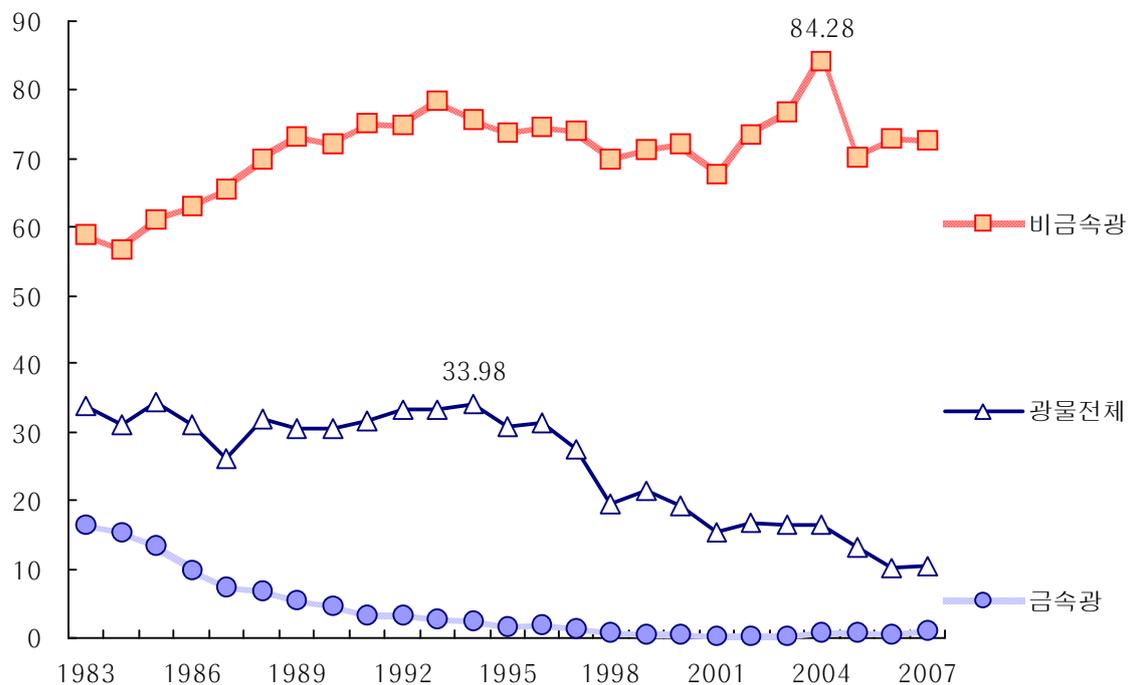
자료 : EIA, "International Energy Annual, Short Term Energy Outlook",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원유 자급률 = 생산량/소비량.

- 낮은 광물 자급률 : 광물 자급률은 국내 생산을 소비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최근 들어 한국의 광물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2004년 84.3%로 정점에 달했다가 최근 하락하여 2007년에는 72.8% 수준을 기록함
 - 반면 금속광의 자급률은 1983년 16.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 0.21%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나 2007년 1.1%를 기록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광물 전체의 자급률은 1996년까지 30%대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7년 이후 하락하여 2006년에는 최저치인 10.2%를 기록했으며 2007년 역시 10.4%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수입 광물인 철광의 경우 2001년 자급률은 0.05%였으나 이후 서서히 상승하여 2007년에는 0.61%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광물의 자급률 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산물 수급현황 각 년도.

주 : 광물 자급도 = 생산량/소비량.

- 낮은 곡물 자급률 : 2003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으며,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률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옥수수와 콩의 자급률은 과거에 비해 하락하였음
 - 태풍 매미와 루사의 피해가 있었던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쌀은 국내 생산으로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밀의 경우 이른바 ‘우리밀 살리기 운동’으로 소폭의 자급률을 상승시켰지만, 밀의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1%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 옥수수의 자급률은 1993년 1.4%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05년에는 0.9%를 기록함
 - 1993년 콩의 자급률은 13.8%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여 2000년에는 6.4%,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7%대를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9.7%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곡물 자급률 추이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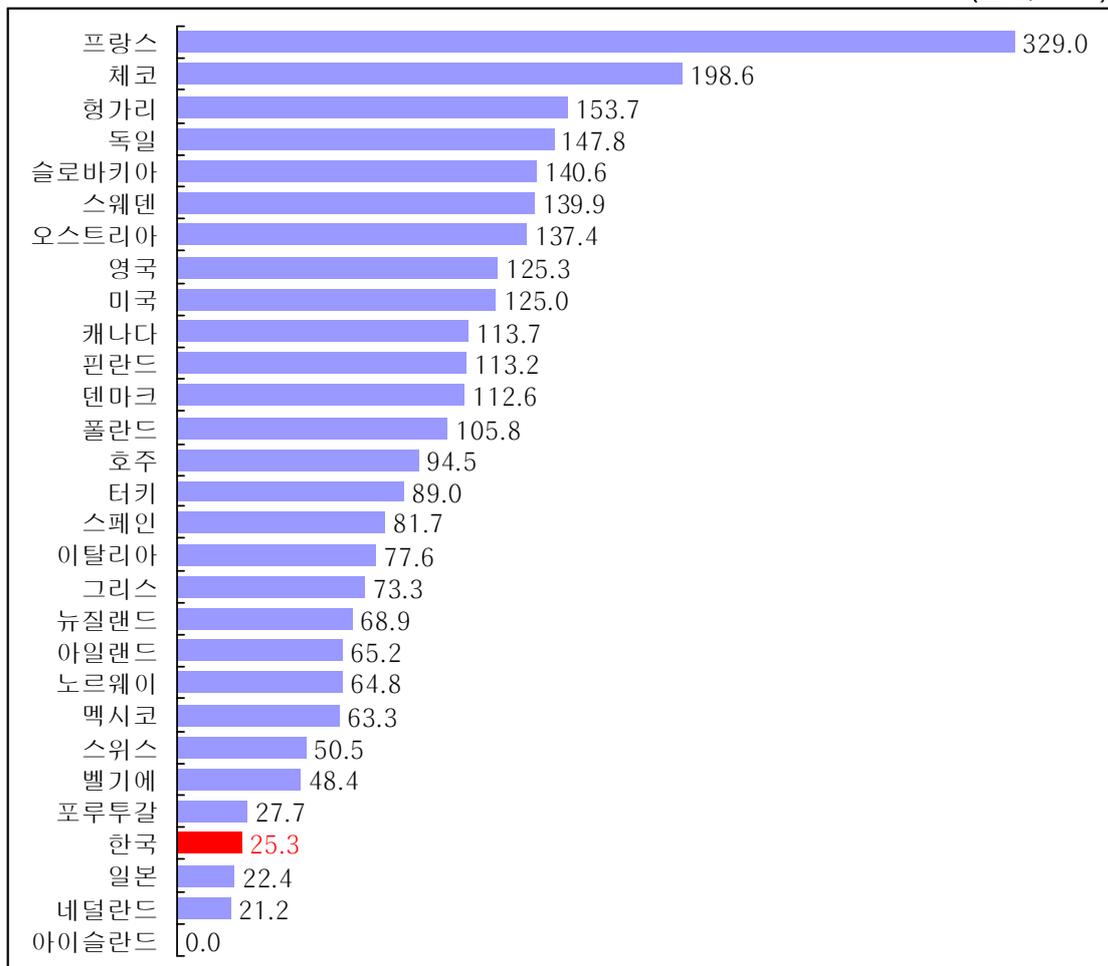
년도	쌀	밀	옥수수	콩
1993	96.1	0.0	1.4	13.8
1994	87.8	0.0	1.4	12.6
1995	91.1	0.0	1.1	9.9
1996	89.9	0.0	0.0	9.9
1997	105.0	0.0	0.0	8.6
1998	104.5	0.1	1.1	9.4
1999	96.6	0.1	1.0	9.1
2000	102.9	0.1	0.9	6.4
2001	102.7	0.1	0.8	7.7
2002	107.0	0.2	0.7	7.3
2003	97.4	0.3	0.8	7.3
2004	96.5	0.4	0.8	7.1
2005	101.7	0.2	0.9	9.7

자료 : 통계청 DB.

- 2003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5.3%로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인 26위를 기록함
- 프랑스, 체코, 헝가리, 독일, 슬로바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등 13개국의 곡물 자급률은 100% 이상을 기록해 곡물에 있어 자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곡물은 밀, 쌀(정곡 기준),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기장, 수수 등을 포함 하며, 룩셈부르크의 데이터 부재로 OECD 국가 중 29개국의 곡물 자급률 을 산출함

< 2003년도 OECD 국가별 곡물 자급률 >

(단위 : %)



자료 : FAO, Food Balance Sheet.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곡물 자급률 = 생산량/소비량, 소비량=생산량-순수출량-재고변동분.

- **거대 재해의 피해가 빈번** : 더욱이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나 미얀마의 싸이클론 등과 같은 거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곡물 및 육류에 대한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곡물 가격 및 사료용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식료품 가격 및 육류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한국 역시 식량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
 - 기상이변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Munich Re¹²⁾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의 기상재해 연평균 발생 건수는 7.3건으로 1950년대의 2.1건에 비해 3.5배 증가하였음
 - 반면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950년대 48.1억 달러에서 1990년대 이후 최근 까지 690.6억 달러로 14.4배 증가함

- **한국의 자원 위기 가능성** :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지속적인 곡물 가격 급등은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
 -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 및 무역수지 악화, 기업 채산성 악화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경제 성장 둔화로 외환 보유고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원 가격 급등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져 전기 및 교통 등과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곡물 및 육류에 대한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곡물 가격 및 사료용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식료품 가격 및 육류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한국 역시 식량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과 조류독감 등과 같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격의 상승 역시 쌀 소비량을 증가시켜 쌀 역시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12) Munich Re, Topics Geo Annual Review : Natural catastrophes 2005.

5.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정책 마련)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국내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과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식량 위기에 대비한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함

- **에너지원 다변화** : 해외 유전을 적극 개발하고, 전력 생산에 있어 원자력 비중을 늘리며,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자원 보유국에 대한 ODA 강화 등을 통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여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함으로써 원유를 국제 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국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고유가의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임기응변식의 개발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함으로써 고유가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을 절감해야 함

-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정부의 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또한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여 미래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역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함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소비의 증가 폭을 낮추고, '省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함

- 우리나라는 석유의 대외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연비를 상승시키는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도입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할 것임
 - 자원 가격 급등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 이른바 ‘省 에너지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식량 위기 대처 방안 마련** :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 및 농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곡물 및 육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세계 각지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농업이 단순히 경제성 및 형평성 논리가 아닌 식량 안보 등과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WTO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 압력을 줄이고, 자원에 대한 헤지 및 투자를 활성화하며 고유가를 사업 기회로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할 것임**
- **생산비 증가 압력 해소를 위한 노력** :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 및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고유가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상품 선물 시장의 적극 활용** : 상품 선물 전문가를 양성하여 선물 시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헤지 및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그동안 자원은 제품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원료로 여겨졌으나, 상품 가격의 폭등과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는 자원에 대한 견해를 투자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음

- 상품 선물 시장을 단순히 헤지 차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일정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고유가를 사업 기회로 적극 활용** : 고유가를 사업 기회로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함
 - 고유가의 위험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함 **HRI**

임상수 연구위원(☎ 3669 - 4125, happylims@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경제 고용 창출력 약화 지속

○ 통계청의 고용동향(7월)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4개월 연속 20만명 미만의 증가를 기록함

- 6월중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동월대비 14만 7,000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35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취업자수는 2,396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 증가에 그쳐, 2005년 2월(0.4%) 이래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임
- 취업자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는 감소하였음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48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26만 9,000명)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1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7%(1만 8,000명) 증가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4월	5월	6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5.8	3.1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2.0	-2.5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2.5	18.8	-
		수출	14.4	14.1	9.4	18.2	17.5	26.4	27.2	-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5	10.4	8.3	-
	공급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71	2,394	2,396
		실업률	3.5	3.2	3.1	3.0	3.4	3.2	3.0	3.1
		수입	18.4	15.3	7.3	25.9	28.2	28.5	28.8	-
		대외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6	-3.8
거래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2	10	-	
물가	생산자물가	2.3	2.7	2.0	4.3	6.9	9.7	11.6	10.5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1	4.9	5.5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의 하락세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강세로 전환

- 금리: 미 지방은행들의 손실 확대 우려가 증폭되면서 대폭 하락하였으나, 일부 경제지표들이 예상외 호조를 보이면서 반등하여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국채 10년물 : 3.96→3.99%)
- 환율: 달러화는 미 재무부 및 연준의 비상구제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강세로 전환 (\$/€ : 1.5937→1.5863, ¥/\$: 106.27→106.28)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약세

- 주가: 미국 양대 모기지 업체의 부실 등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한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에 의해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567.5→1,509.9)
- 금리: 주 초반 6.17%까지 급등한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5%대로 급락하면서 마감 (국고채 3년 수익률, 6.15→5.97%)
- 환율: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송금 수요 등에 의해 주중 내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1,002.3→1,013.8)

○ (전망) 금융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안정세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7.11	7.18 ¹⁾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567.5	1,509.9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6.15	5.97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002.3	1,013.8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1,229	11,446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3,067	12,887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41	3.96	3.99
	일본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29	1.60	1.60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937	1.5863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6.27	106.28
	두바이(\$/배럴)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39.03	131.08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7.17) 기준